

파이낸셜뉴스

귀 핑 화웨이 회장 "클라우드, AI 등 5대 기술로 가치 창출"

기사입력 2020-09-23 14:57

귀 회장 '화웨이 커넥트 2020'서 비전 선포



귀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이 화웨이가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연례 글로벌 ICT 컨퍼런스인 '화웨이 커넥트 2020'의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화웨이가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연례 글로벌 ICT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 2020'을 개최했다. 화웨이는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활동들과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각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올해 ICT 업계는 전세계에 걸쳐 대단위의 5G 상용화가 이뤄짐에 따라 연결성, 클라우드, AI, 컴퓨팅,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5대 기술이 한데 어우러지며 유례없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화웨이 커넥트 행사는 5대 기술 분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귀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5대 기술 영역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귀 핑 순환 회장은 "현재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졌고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화에 접어들고 인텔리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파트너사들과 함께 새로

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귀 회장은 화웨이가 스마트 기업,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도시 구축에 기여한 선도적인 사례들을 공유했다. ICT 기술과 산업 노하우를 결합하여 정부나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 시스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나리오별 솔루션을 소개했다.

향후 화웨이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ICT 기술을 업계에 적용하고 기업에게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정부에게는 내수 산업 진작, 국민 지지, 거버넌스 향상 등을 위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이날 네트워크, 컴퓨팅, 클라우드,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도 보였다. 우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화웨이는 '지능형 연결'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지능형 연결은 유비쿼터스 기가비트 접속과 결정론적 경험을 선사하는 초자동화 네트워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 정부와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시스템의 지능형 업그레이드를 추구한다.

컴퓨팅 분야에서 화웨이는 고객에게 다양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화웨이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디커플링 설계를 통해 x86과 쿼터 등 서로 다른 프로세서에 연결, 각기 다른 프로세싱 니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화웨이는 전 세계에 23개 클라우드 리전을 설립, 15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화웨이는 AI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시스템에 AI가 보다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화웨이가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를 통해 AI시스템 내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귀 회장은 행사에서 연결성, 컴퓨팅, 클라우드, AI 기술이 100년 전에 등장한 전기와 같다면, 산업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전기로 구동되는 가전제품이나 산업용 장비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혁!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혁신]**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4&aid=0004499809>